체험수기

현장에서 다져진 굳은 연대

빈민학생 연대활동

4천만 국민들의 관심속에 제14대 대통령 선거도 '신한국'건설의 김영삼 문민정부를 탄생시키며 막을 내렸다. 역대대통령선거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치뤘다고는 하지만 대선의 후유증은 여전히 우리 민중들에게 배어 있는 듯 하다. 우리 학생들도 대선 이후 패배감과 허탈감에 빠져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 우리들 활동의 내용은 민중들과 호흡하고 만나는 과정에서만 신뢰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에 우리들은 무력감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93동계빈민학생연대활동(이하빈활)을 계획하고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93동계빈활은 동부지구 차원에서 경희대, 외대, 서울여대 학우들과 함께 2월8일~12일까지 4박 5일동안 노점빈활로서 진행되었다. 우리 경희대서는 아직 빈활이 대중화되지 못해 약15인의 학우들만 참가하였다. 우리 빈활대원(이하빈대)들의 주요활동 무대는 경희대의 빈활역시가 살아 숨쉬는 동대문지역 노점이며, 주활동은 장사를 하며 노점상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동계빈활 첫 날은 학생들이 빈활을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내기 위한 지역선전전을 시작으로 지부배치이후 본격적인 빈활동에 들어갔다. 노점상분과 일대일로 만나 장사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 저녁이 되면 각자 맡은 지부에서 일을 마치고 동대문, 중랑지역 노점상 연합회(회장 : 정병찬)에 모여 저녁식사를 맛있게 지어먹고 골바로 지부별 평가와 하루 평가를 수행하고 하루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이후에는 빈대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조촐한 뒷풀이가 이어졌다.

빈활 둘째날은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아침 교양을 11시까지 진행하고 첫째날과 마찬가지로 지부배치를 한 후 본활동을 수행했다. 저녁에 하루 평가가 있은 후 둘째날에는 이번 동계빈활에서 새롭게 제기된 노점상분들과의 생활적 결합으로써 그분들 곁에서 숙식을 하였다.

사십 노점상분들과 장사만 하다보면 그들의 이기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이는 그들의 본질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를 가졌는데, 노점상분들과의 숙식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방식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었다.

세째날과 네째날 역시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4박5일간의 93동계빈활을 총화하는 마지막날에는 동노련 비상총회를 소집해 구청측의 강제 단속에 맞서 '자체경비 결의대회'를 2백여 회원들의 참여속에 경희대에서 열었다. 불미스러운 상황의 발생속에서도 이 자리에서는 동계빈활의 총화와 빈학연대의 결의를 다졌다.

비상총회가 끝난 후 빈학한마당의 본프로그램인 친선체육대회를 가졌는데 학생측이 2대1로 승리하여 동계빈활 뒷풀이는 노점상측에서 전액부담하게 되었다. 전체 뒷풀이 시간에는 그동안 못다했던 서로간의 회포를 풀며 이번 동계빈활의 정리와 함께 다음 하루빈활을 기약하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랬다.

4박5일동안 수행한 이번 93동계빈활의 의의는 일상적인 민중들과의 결합속에서 상호 신뢰감의 획득과 문제의식을 교호하며 이 사회의 발전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계기로 대선 이후 이완된 동대문 노점상 연합회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빈활대원들에 대한 사전교양의 부재와 이전의 빈활활동방식의 한계로 올바른 연대의 관점을 견지하지 못했다.

이번 동계빈활은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분반활동과 노점상분들과의 숙식이라는 활동방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하루하루의 활동내용을 지부별 카드로써 작성하여 일회적 빈활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내용을 가진 성과를 남기는 빈활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경희대 빈활의 역사도 1년이 되었다. 빈활의 대중화라는 험칠난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 모두들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새롭게 하나의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진보와 지성을 지향하는 우리 대학생들이라면 현실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중들과 함께 희망을 일구어야 하지 않을까?

3월 하루빈활은 꼭 8천5백여 경희인과 함께 해보고 싶다.

"어려운 시대, 하나의 실천"

김 태 호
〈검영·3〉

노점상들과 함께 장사·숙식
상호 신뢰감 조성 계기돼

동계 농촌 활동

우리가 겨울 농활을 갔던 1월 중순경 역시 순창군 농민회는 무척 분주했다. 작년 11월, 쌀 적재 시위 중에 구속된 분들의 면회와 농민회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사과·귤비 시판 그리고 속속들이 결성되는 마을 농민회, 마을 여성 농민회 교육과 지도등의 여러 사업으로 3계절 농사에 지친 몸조차 쉴새 없이 여기 저기 뛰어 다녔다. 그래서 우리들도 애초 계획했던 보론회라든가 마을 순회를 모두 폐기하고 간간히 술자리를 마련하여 청년분들과 그동안 쌓인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농민운동의 못을 품고 순창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우리학교 선배의 집을 찾아가 기도하고 남원 경찰서에 구치된 세 사람의 구속자 면회를 가기도 하였다. 이들 구속자들은 감옥에서 오랜만에 가져보는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면서 그동안 못 읽던 책을 읽느라 무척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다.

각계 각층에서 사회정반에 민주개혁을 요구하며 정권교체를 갈망했던 대통령 선거가 정권교체 실패로 끝나 우리들은 무척이나 힘들게 지냈었다. 그래서 겨울 농활도 차량 두대를 겨우 채워 순창으로 내려갔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는냐며 3박4일 내내 "학생들 힘내, 같이하며 이야기 나눌 때마다 마음에 걸려 그리 즐겁게 지내지만은 못했다. 결혼 적령기에 든 이들의 갈등은 도시 젊은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전국의 모든 농촌과 마찬가지로 순창 역시 남아 있는 젊은이 대다수가 노총각이다.

우리나라엔 (농촌 총각 결혼 대책위)가 있는데 지구상 유일무이한 단체이라고 한다. 이번에 순창군 구림면 농민회장이 35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나와 동갑이었다. 지역에 하루 평가가 있은 후 둘째날에는 이번 동계빈활에서 새롭게 제기된 노점상분들과의 생활적 결합으로써 그분들 곁에서 숙식을 하였다.

사십 노점상분들과 장사만 하다보면 그들의 이기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이는 그들의 본질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를 가졌는데, 노점상분들과의 숙식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방식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었다.

시련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일을 다하며 산 농민들의 삶속에서는 경외감이 느껴지고…

이것 것 갖고 될 그려!"하며 오히려 우리들 격려했다. 청년학생들이 끈질긴 인내력이 없는 반면 농민들은 시련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 하며 산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기간이었다. "한계에 부딪치면 그 한계를 추진력으로 먹고 살자"는 교훈이 가슴속에 자리잡게 되었다고나 할까?

순창에서 청년들과 술자리를 노총각인데 작년에 배우자가 정해져 집까지 수리하는등 결혼준비에 부산하였다. 그러나 집이 다 완공될 무렵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 결혼이 삐지게 되어 비탄다. 그로서는 어렵게 얻은 행운이었지만 좌절되었다. 이런 경우는 왕으로 흔한 일이다. 많은 농촌 청년들이 농촌에 대한 단호한 의지 만으로 살기엔 현실에 대한 선결문제가 많음을 느낀다. 언제쯤이면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오려나 생각하며 한반도 남녘의 청년으로서의 임무를 되새기게 된다.

그렇게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고 순창에서 마지막 농활의 서운함과 아쉬움을 남긴채 상경하려는 차에 올랐다.

바빠서 제대로 청겨주지 못하여 미안하다며 지난 2월 15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농민대회 때 87년부터 순창에서의 농촌활동에 감사하는 뜻으로 2톤 가량의 호서을 전해 받았다. 싯가도 상당히고 매우 귀한돈인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니 너무도 고맙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열심히 하고 끝까지 농민과 학생이 서로 같이 한 길로 나아가자는 뜻임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경건하게 앞을 내다보게 된다.

올해부터 전라북도 고창군으로 농촌활동을 가기로 하였는데 순창에서보다 더욱 더 기쁘고 보람되게 연대를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 글을 마친다.

주 선
〈생물·4〉

한주메모

▲1일—'일본의 전쟁 범죄 진상 규명과 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국제연대집회' 전국 곳곳에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림. '정신대 진상 규명, 피해보상 요구'.

—여(女)호주에도 종회재신문 배. 서울 고법 개정가족법원장 첫 판결.

▲2일—인기부 국제정보수집으로 기능축소, 정치공작없애고 기관회의·각종 행사 참석 금지.

—서울시내버스 협상 타결, 올해 8% 인상합의, 식대는 내년 거론.

—한·독 정상회담. 경협과 고속전철 논의. 남북상호핵사찰 필수 공감.

▲3일—정부, 감자·한약재 등 농축수산물 북한과 계약재배추진, 남북관계 경색해소 일환으로.

—'용팔이 사건' 전면 재수사, 김용남씨 조사, 이택희·이승범씨 소환장.

—통계청·한은발표, 소비자 물가 1.5% 상승, 공공요금 3.4% 급등, 물가불안 주요인.

—민자당 최고위원제 폐지, 총재·대표·구역 단일체제로 전환.

▲4일—미 '탐스피리트훈련' 정단병기부입. 일본신본보도, 핵전쟁용 B1전략폭격기 첫 동원.

—대한의학협회, 뇌사판정기준 제정, 선포.

—이달중 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경제장관회의에서 5대 개혁과제 선정.

▲5일—김상철 서울시장 경질, 그린벨트 혁정 변경관련, 박희태 법무장관은 유임.

—보사부, 뇌사장기이식허용 입법추진.

—상공회의소 '3단계 금융실명제' 정부에 건의, 주식제외한 금융거래부터 우선 실시.

—김영삼대통령 '정치자금 안받겠다' 선언. 국무위원 전원 재산공개예정.

—'주한미군범죄 근절대책수립을 위한 공청회' 기독교회관에서 개최.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 지적, 정부의 주체적 대응 촉구.

▲6일—4단14조8백86명 대사면. 문익환목사 포함 '공안'사범 5천여명 복귀. 뇌물외유, 고문치사 관련자 제외.

—민자, 중·대선거구제 추진, 지구당 시도지부 폐지도 적극 검토.

—러시아의회 비상회의 10일 개최, 국민투표실시여부 최종 판가름.

시사상식

◇…한미행정협정에 관하여

외국군대가 평화시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 장기간 주둔하는 경우에 그 지위에 관한 협정은 당사국의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지위에 관한 협정이 소위 한미협정인데 이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당사국들간에 체결된 London 협정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지위에 관한 협정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66년의 한미협정은 협정문 외에 부속서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로인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합의의사록' '합의 양해사항' '제22조 및 합의의사록 제3항 (나)에 관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한합중국 대사간의 1966년 7월9일자 교환서'등의 세가지 부속서가 있는 바, 본 협정은 자체는 NATO군에 관한 런던협정이나 미일협정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이러한 부속서를 거치는 동안 법적 전적으로 한국이 지도력 하고 있으며, 미국은 단지 그 유지비용만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출입국관리에 관한 제8조 1항에 의하면 미군당국은 출입하는 군인들의 종류와 숫자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출입국시 미군군속은 일정한 신분증과 여행명령서를 소지하여 한국당국에서 요구하면 제시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한미협정 제9조를 보면 군인이 아닌 그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미군이 반입하는 물건에 대하여 전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세되며,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미군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등은 도착후 6개월 이내에는 "합리적인 분량의"각종 물품을 면세로 자유롭게 통관할 수 있어서 미군이 반입하는 물건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 미군내에 판매소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셋째, 형사 관할권과 관련하여 한미협정 제22조와 그 부속서는 ①군당국의 형사관할권의 행사대상에 민간인을 포함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②형사관할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미군당국이 오히려 1차적 행사권을 가지며, 다만 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살인, 강도, 강간죄 중 특히 한국이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이 상당히 빈질되어 대체로 너무 많은 배려와 편의를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협정의 경우 제1조(정의)에서 부터 제31조(협정의 유효기간)에 이르는 여러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면관계상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고, 현저하게 불평등하거나 런던협정이나 미일협정 등 주요협정의 기본입장과 지나치게 벗어나는 부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한미협정 제2조는 시설 및 구역의 공여에 관한 비용과 책임을 관철의 간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한미협정은 대한민국에게 현저히 불평등한 조약이며 미군에게 너무 많은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즉, 가장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런던협정을 비롯한 각국의 유사한 협정의 기본입장과 많이 벗어나 있고, 특히 부속서들의 경우 지나치게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속서를 모두 삭제하고 한미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실추된 자존심—불평등 조약의 원형

이 기 종
(본교 행정문제 연구소·연구원)

'93 책의 해

溫故而知新?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루황
훈장님의 회초리를 통해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1년에 3만여종씩 출판되는 신간 서적들
신문, 잡지, TV…

신속하게 정리된 정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첨단의 설비가 당신을 도와 드립니다.

전통과 첨단에의 만남 교보문고

교보문고는
- 14개국 700개 거래처에서 수입한 7만종 30만권의 책을 외국 서적관에 갖추고 있습니다.
- 지난 100년간 구미 유명대학의 학위논문, 학술자료, 정기간행물들을 첨단 정보실에 갖추고 있습니다.
- 총연장 24.7km의 서가에 15만종 150만권에 달하는 국내의 모든 서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원제 교보 북클럽을 운영하며 통신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 국내 각종 문화행사의 예매권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관리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도서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각급 연구소, 학교, 기관, 기타 단체의 도서구입 업무에 도움을 드릴 특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신학기 교재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전화 : (대) 730-7891